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8
2025.08.04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EU, 하반기 탄소배출권 경매 물량 6% 축소 결정
- EU·미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유지, EUA 가격 하방압력
- 말레이시아, 탄소시장 정책 확정 및 ETS 도입 5개년 계획 발표
- 볼리비아, 2026년 탄소크레딧 발행 선언, 탄소시장 전격 합류
- 영국, 산림 탄소 크레딧 표준 개정, 국제 기준 부합 강화
- 일본 미쓰비시, 'Japan CDR Council' 출범, CDR 생태계 구축 주도
- 아프리카, 탄소시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메커니즘 구축
- CORSIA 선물, ICE서 사상 최고가 경신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U, 하반기 탄소배출권 경매 물량 6% 축소 결정

EU는 2025년 하반기(9월~12월) 시장에 나오는 탄소배출권 경매 물량을 전년 동기 대비 6% 감축하기로 결정, 연말까지 판매 물량을 재조정해 192.11백만 톤을 경매에 부칠 예정. 이는 올해 전체 계획량보다 감소한 수치

이로써 2025년 연간 전체 경매 물량은 5억 8,874만 톤으로 조정. 항공 부문 11.54백만 톤은 별도 EUAA (EU Aviation Allowances) 없이 일반 경매 물량에 통합. 특별기금 배정으로는 사회탄소기금 5,000만 톤, 혁신기금 35.42백만 톤, 현대화기금 88.33백만 톤이 각각 배정

시장안정준비금 (MSR)에 따른 2026년 경매 물량 감축분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물량에 이미 적용되어 있으며, 하반기 물량은 잠정치로 남아 추후 수정 가능. 분기별 경매가 실시될 예정

집행위는 2025년 9월~2026년 8월 기간 동안 2억 7,553만 톤이 MSR로 이관되며, 해상 취소 (maritime cancellation) 물량은 연말 경매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힘.



EU·미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유지, EUA 가격 하방압력

최근 EU·미국 무역합의는 거의 모든 EU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단일화했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분야에는 여전히 50% 관세가 적용

이로 인해 해당 업종의 대미 수출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 작년 기준 철강, 알루미늄 부문이 전체 고정설비 배출량의 10% 미만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단기적 배출권 수요 충격은 제한적

다만,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분야의 EUA 수요가 악화돼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최초 관세 부과 이후 460만 톤에서 380만 톤으로 이미 80만 톤이 감소한 수출 물량은, 6월 관세가 50%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 수출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

알루미늄 업계는 합의 세부사항이 불투명하다며 EU 집행위에 구체적 합의 내용과 발효 시점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



말레이시아, 탄소시장 정책 확정 및 ETS 도입 5개년 계획 발표

말레이시아가 2026~2030 개발계획 청사진을 의회에 제출, 국가 탄소시장 정책 및 배출권거래제 (ETS) 도입을 공식화함.

기후변화법 초안이 곧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ETS 도입 및 탄소 감축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 병행될 계획

철강산업 중심의 CCUS 시범사업, 지속가능 항공연료 (SAF) 도입 등 항공 탈탄소화 로드맵, 바이오매스 활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탈탄소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정부는 또한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5%로 늘릴 계획임을 발표

말레이시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2005년 대비 45% 감축하겠다는 NDC를 제출, 최근 정책은 이러한 NDC 이행을 본격화하려는 의지로 해석



볼리비아, 2026년 탄소크레딧 발행 선언, 탄소시장 전격 합류

볼리비아가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탄소크레딧 발행을 예고하며 탄소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힘.

볼리비아는 과거 국제 탄소시장 참여에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2024년 말 자국 헌법재판소가 탄소거래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을 계기로 정책을 선회, 올해부터 예산법에 탄소시장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함.

정부는 산림 기반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기초해 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최대 12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탄소 크레딧을 발행할 계획. 민간 투자자, LEAF* 등 국제 연합과의 거래도 검토 중

*LEAF연합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

: 개도국의 산림 파괴 방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든 국제 탄소감축 연합

: 열대림 보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탄소 감축 실적에 대한 탄소크레딧을 구매



영국, 산림 탄소 크레딧 표준 개정, 국제 기준 부합 강화

영국의 산림 탄소 크레딧 인증 기준인 'Woodland Carbon Code' (WCC)가 개정됨.

동 개정안은 국제 기준 (ICVCM)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최소기간 요건을 강화하면서도 소규모 프로젝트의 참여 장벽은 낮춘 것이 핵심

WCC는 영국 내 산림 조성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인증받은 프로젝트에서는 탄소 크레딧을 발행해 판매할 수 있음.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소규모 프로젝트가 참여할 수 있게 됨.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미 수백 개 프로젝트가 WCC로 인증받았으며, 약 1,080만 톤의 이산화탄소 제거가 기대

영국 정부는 이 WCC 기반 크레딧을 2029년 ETS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자연기반 제거 수단에 대한 제도적 통합 움직임이 계속되는 추세



일본 미쓰비시, 'Japan CDR Council' 출범, CDR 생태계 구축 주도

일본의 대표적 종합상사 미쓰비시가 올해 9월 'Japan CDR Council'을 출범할 예정

동 협의회는 Sumitomo, Tokio Marine & Nichido Fire Insurance, MOL, NYK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CDR 분야 이해관계자 간 협업과 시장·산업화 촉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

일본 정부의 2040 GX 전략에서 CDR의 중요성은 인정됐으나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점을 보완하고, 규칙 제정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협의회 핵심 과제

첫 회의는 9월 11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미쓰비시는 자회사 벤처인 NextGen CDR Facility를 통해 전 세계 수요자를 모으고, 미국의 Heirloom Carbon Technologies에 투자해 상업용 직접공기포집 (DAC) 시설 운영에도 나서는 중



아프리카, 탄소시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메커니즘 구축

아프리카연합개발기구 (AUDA-NEPAD*)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시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대륙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출범

탄소시장 규범, 조정 메커니즘, 디지털 플랫폼 등이 포함

핵심 포인트 :

-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원칙 도입 (환경 기준, 수익 분배 등)
- 대륙 차원의 협의체 구성 (분절화 방지, 공동 전략)
- 디지털 추적 시스템 개발 (투명성, 정합성 확보)
- 국제사회와의 연대 (영국·싱가포르·케냐 중심 연합 구성)
- 금융 지원책으로 아프리카 탄소시장 지원기금 (ACSF*) 설립 예고

***AUDA-NEPAD (African Union Development Agency
-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 Agenda 2063라는 아프리카의 장기 발전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중심 기관으로, 지역 통합, 역량 강화, 지식 기반 정책지원, 자원 동원 등을 주도

***ACSF (Africa Carbon Support Facility)**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출범한 아프리카 탄소시장 지원기구



CORSIA 선물, ICE서 사상 최고가 경신

ICE의 CORSIA 적격 Emissions Units Dec-25 선물이 지난 7월 24일 톤당 17.85달러 (약 2.4만 원)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

신규 크레딧이 곧 CORSIA 적격 태그를 받아 레지스트리에 등록되며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보험과 연계해 CORSIA 제도의 신규 공급 승인 속도를 높이려는 주요 스탠다드 운영기관 Verra와 Gold Standard의 발표가 맞물린 영향

IATA 경매에서 톤당 약 22달러 (약 3만 원)에 낙찰된 것 또한 시장의 적정가 신호로 해석됨. 다만, 현재 미결제약정이 200lots 미만으로 유동성이 낮아, 본격적인 공급 분이 시장에 풀릴 때까지는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